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전라북도교육청

1. (가)~(다)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자기가 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 세상에서 자기보다 소중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더없이 소중하다. 그러기에 자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 ① 인간은 무엇이 소중한지 모른다.
- ②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다.
- ③ 상대방의 처지에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 ④ 인간은 창조주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가진다.
- ⑤ 타인을 위한 희생은 최상의 윤리적 가치를 지닌다.

2.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칠정(七情)은 기(氣)가 드러난 것이나 양심의 규제를 받으며, 사단(四端)은 이(理)가 드러난 것으로 '기'에 의해 현실화된다.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것과 같다. 이 때 말이 간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이 간다고 할 수도 있다. 말이 간다고 하는 것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에 탄 경우로, 정신 잃은 사람을 말이 제 멋대로 싣고 가는 경우와 같다. 사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에 따르는 것으로, 정신이 맑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말을 모는 경우와 같다. 이 두 경우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을: 이(理)와 기(氣)는 논리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물에 있어 '이'는 '기'의 주재(主宰) 역할을 하고, '기'는 '이'의 재료가 된다. 발동하는 것은 '기'이고 발동하게 하는 것은 '이'이다. '기'가 아니면 발동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바가 없다. 인간의 마음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이며, '기' 없는 발동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나)

—<보 기>—  
ㄱ. A: '이'는 개별 사물에 국한되고 '기'는 만물에 두루 통한다.  
ㄴ. B: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  
ㄷ. B: '이'와 '기'는 불상잡(不相雜), 불상리(不相離)의 관계이다.  
ㄹ. C: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한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한 사회의 주요 제도가 그에 속하는 모든 개인이 만족하는 최대 행복을 달성하도록 편성될 경우 그 사회는 정당한 질서를 갖춘 것이며 따라서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을: 절차와 규칙이 공정하다면 그것을 따르기만 해도 그 결과 역시 정의로운 것이다.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인간은 자신보다 타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존재인가?
- ② 분배의 공평성보다 행복의 총량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 ③ 인간은 고립되어 살아가기보다는 사회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가?
- ④ 최소 수혜자의 행복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보다 중요시되어야 하는가?
- 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은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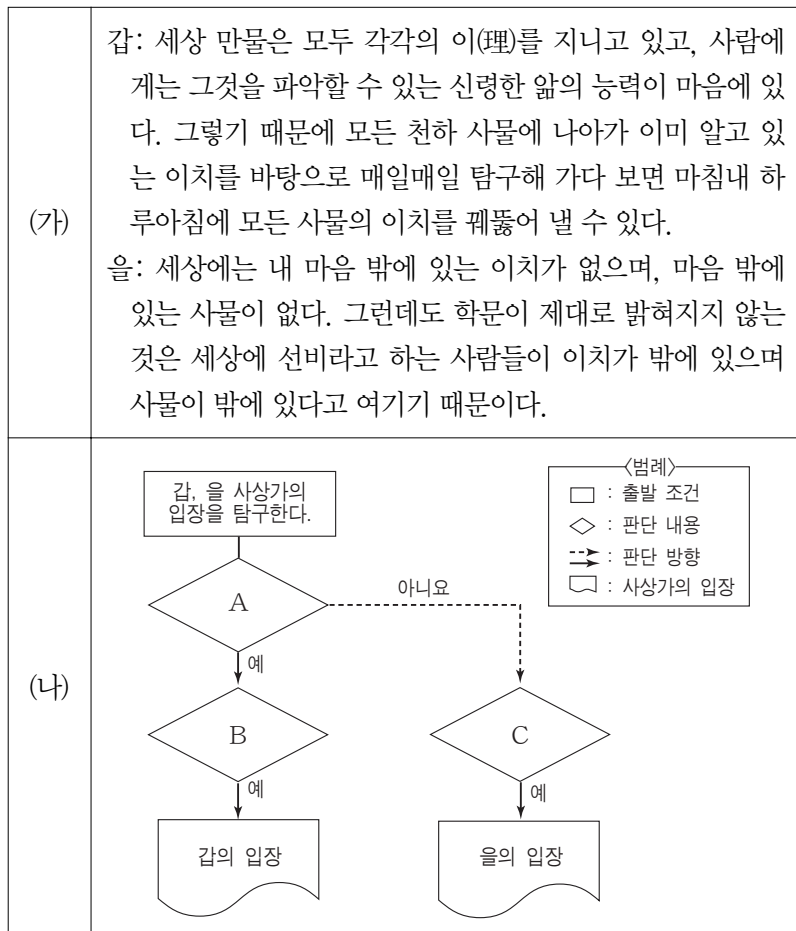
4.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사상적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만일 우리가 온전히 이성적이 되어 참된 인식에 이를 수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어 이웃을 사랑하고 우주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의 정신은 우주와 하나가 되며,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관조(觀照)하는 데서 오는 평온한 행복이야말로 인간에게 가능한 유일한 최고선이다.  
을: 어떠한 관념이든지 그 자체가 신념으로 끌모 있는 것이라면 참된 관념으로 볼 수 있다. 그것들은 자연 세계 안의 여러 사실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인류의 온갖 운명과 상황에 대처하는 데 기운을 북돋우어 준다. 그러나 관조나 명상적인 생활에 대한 동경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릇된 사고에서 생긴 것이다. 관조는 아무런 일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보 기>—  
ㄱ. 지식이나 신념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  
ㄴ.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ㄷ. 진정한 자유는 자연의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ㄹ. 우주는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이다.

- | 갑   | 을 | 갑   | 을 |
|-----|---|-----|---|
| ① ㄱ | ㄴ | ② ㄴ | ㄷ |
| ③ ㄷ | ㄱ | ④ ㄹ | ㄱ |
| ⑤ ㄹ | ㄴ |     |   |

5. (가)의 동양 사상이자,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② B: 행함 이후에 참된 삶이 이루어지는가?  
 ③ B: 격물(格物)의 '격'은 '바로잡다[正]'는 의미인가?  
 ④ C: 마음과 이치는 두 가지로 나뉘는가?  
 ⑤ C: 인간은 이론적 학습이 없어도 지선(至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

6.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나)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우리가 '덕(德)'이 무엇인지를 묻는 까닭은 단지 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덕을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이다.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좋은 행동이 몸에 배이도록 습관화해야 하며, 매사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해 과거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영양의 음식물을 마음껏 섭취하지만 정작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게 만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

- ①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② 운동 그 자체를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③ 감각적 경험에 비추어 보다 많은 만족을 주는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④ 실천적 지혜를 통하여 가장 적절한 운동을 몸에 배이도록 습관화해야 한다.  
 ⑤ 동호인 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활동이 바람직하다.

7. 서양 사상이자,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국가는 가족의 원리와 시민 사회의 원리를 결합시킨 최고의 인륜 형태이고, 개인과 보편적 공동체인 국가는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을: 인격과 지혜를 갖춘 철인(哲人)이 통치자가 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 본분에 해당하는 덕을 잘 발휘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이상적인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

병: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 결과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계약을 맺어서 법과 규범을 만들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를 세우게 된다.

- ① 갑, 을은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전제한다.  
 ② 갑, 을은 국가를 개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③ 갑, 병은 국가를 사회 계약의 산물로 인식한다.  
 ④ 을, 병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직접 통치를 국가 발전의 관건으로 여긴다.  
 ⑤ 갑, 을, 병은 모두 생산과 소유를 함께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8. 다음 사상에서 강조할 만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롭게 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 사람은 정의될 수 없다.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원하는 그대로이다. 사람은 존재 이후에 스스로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 이외엔 아무 것도 아니다.

- ① 인간의 본질은 실존에 앞선다.  
 ②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없다.  
 ③ 운명에 대해 거역하지 말고 순응해야 한다.  
 ④ 자신의 삶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⑤ 인간은 합리적 원리에 의해 설명이 가능한 존재이다.

9. 근대 서양 사상이자,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우리가 사물을 관찰하는 가운데 알게 된 지식, 예컨대 인과 법칙 등은 대상 세계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단지 반복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습관적으로 믿게 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가 갖게 된 관념이나 지식을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믿게 하는 자아의 존재도 찾을 수 없다.

을: 나는 우리의 감각이 때때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감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주는 모습 그대로 실제 세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렇게 의심하려면 의심하는 나 자신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① 갑은 선악(善惡)을 객관적 실재로 간주한다.  
 ② 갑은 을과 달리 자아를 인식의 주체로 생각한다.  
 ③ 을은 진리의 존재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다.  
 ④ 을은 학문의 방법으로 의심하는 태도를 취한다.  
 ⑤ 갑과 을은 진리를 이성에 의해 연역적 방법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16. 밑줄 친 부분이 반영된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유 진영은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자유 민주주의라는 열린 정치 질서와 결합시켜 운영하고, 자기 체제의 결함과 문제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대안의 모색을 허용함으로써, 끊임없는 자기 수정과 보완을 하였다. 자유 진영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주의 쪽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데도 서슴지 않았으며, 그 결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하고 소득의 공정한 재분배를 통하여 복지 사회를 건설하는 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보 기〉—

- ㄱ.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 실패를 시정해야 한다.
- 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서 정부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
- ㄷ.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어려운 사회 계층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 ㄹ.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의 골간을 유지하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의 기법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7. 다음 고대 서양 윤리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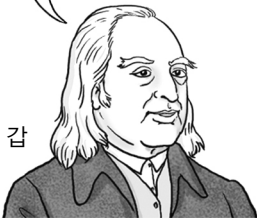
모든 욕구가 채워질 때 반드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은 아니다. 쾌락은 오히려 수준 낮은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억제하고, 세상에 널려 있는 거센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지속적인 쾌락의 상태는 현란한 세상의 손짓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써 가능하게 된다. 쾌락은 뜨거운 열정의 상태가 아니라, 불안과 공포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이다.

- ① 육체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중시하였다.  
② 검소하면서도 절제하는 윤리적 삶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③ 아파테이아(apatheia)를 이상적인 경지로 추구하였다.  
④ 쾌락을 인간의 최고 목표로 간주하는 입장을 비판하였다.  
⑤ 감각이나 욕망 대신 이성인 인간 정신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8. 다음 대화로 미루어 볼 때, 갑의 주장에 전제되어 있는 사상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아무리 동기가 선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옳은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결과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



동기와는 상관없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옳은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옳음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인데, 저는 결과나 이익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옳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보 기〉—

- ㄱ. 도덕 법칙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다.
- 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한 것은 선의지뿐이다.
- ㄷ. 선과 악의 가치 판단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편적인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ㄹ.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서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심(一心)이란 무엇인가? 깨끗함과 더러움은 그 성품이 들어가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一]라고 한다. 그러나 이 둘이 없는 자리에 모든 법(法)의 실다움이 허공과는 달라 스스로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이니, 이를 마음[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없는데 어찌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없는데 무엇을 일러 마음이라 하겠는가? 이 같은 마음의 도리는 말을 여의고 생각을 초월했으니 무엇이라고 지목할 바를 몰라 억지로 이름하여 하나인 마음[一心]이라고 한다.

—〈보 기〉—

- ㄱ. 불교를 중심으로 신선 사상, 불로 장생설 등을 융합하였다.
- ㄴ. 불교 사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독창적 이론을 정립하였다.
- ㄷ. 왕실 중심의 귀족화된 불교를 민중 불교로 전환시켜 보편화하였다.
- ㄹ. 단번에 진리를 깨친 뒤 번뇌를 차차 소멸시켜 가는 돈오 점수를 정착시켰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상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은? [3점]

여성들이 가진 도덕적 관심의 본질은 남성과 다르다. 여성들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보살핌의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관점들까지 포함하여 판단한다. …(중략)… 여성들이 판단 내리기를 꺼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성향 때문에 여성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 ① 보살핌과 배려를 강조한다.  
②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중요시한다.  
③ 여성의 탁월한 도덕적 능력을 존중한다.  
④ 차가운 정의와 따뜻한 배려의 조화를 추구한다.  
⑤ 공정성, 개별성, 보편적 원리 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 확인 사항

답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입(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오.